

## 美 “기독교를 卅 공식 종교로” 찬성 34% 반대 47%

종교와 정치간 균형에 대한 필요성 느껴

4일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이 주 공식 종교(state religion)를 제정하는 법안을 부결시켰으나, 이에 대한 지지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허핑턴포스트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34%가 기독교를 그들이 속한 주의 공식 종교로 제정하는 데 찬성했으며, 47%는 반대했다. 또한 이 중 32%는 기독교를 미국의 공식 종교로 만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 반면, 52%는 이에 반대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주의 공식 종교 제정에 찬성했으나, 미국 헌법에서 주가 공식적인 종교를 제정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답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58%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답했고, 3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 대법원은 정부가 공식 종교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한 ‘수정 헌법 1조’가 주 각주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화당의 경우 55%가 기독교를 주

공식 종교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46%가 개정 헌법에 찬성해, 민주당이나 무소속보다 주의 공식 종교화에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를 주 종교로 제정하는 데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이는 이유는, 종교와 정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미국에서 종교와 정부가 과도하게 얽혀 있기보다,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17%만 국가가 제정 분리에 있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이달 초 미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인종을 비롯 성별, 교육, 직업, 혼인 여부, 자녀 수, 유권자 등록, 정치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여론 조사업체 ‘YouGov’에 사전 동의한 온라인 패널들로부터 표본을 추출했다. 주디 한 기자



**우루과이 상원, 동성결혼법 통과** = 2일 남미의 우루과이 상원의회가 동성결혼법 관련 투표를 진행, 23대 8이러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미 지난 12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우루과이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성 간의 결혼과 동성 간의 결혼의 차이점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내려가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한 후에 법제화된다. 이미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서명을 약속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루과이는 2010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아르헨티나에 이어 남미에서 2번째, 전세계에서 12번째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ISSUE

## “자살은 용서 불가? 가톨릭 교리 오해한 것”

짐 데니슨, ‘워렌 목사 아들의 자살과 하나님의 은혜’ 칼럼서 주장

## 동성결혼 지지 여부가 인간 판단하는 기준 되는 시대

현 시대 인간을 평가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동성결혼 문제가 되고 있다면 심한 말일까? 마치 “남성이나 여성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와는 달리 인류 역사의 시작점부터 그 역사 자체를 유지시켜 온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란 문제가 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다. 다만 아직 어느 것이 대세인지는 진행형이다.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대형교회 달라스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Dallas)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인 1억3천만 달러 규모의 새 성전을 임당했다. 보수적 백인 3200명이 매주 예배 드리

는 이 교회는 이번에 다운타운에 위치한 50만 스퀘어피트의 부지에 3천석 규모의 본당을 지었다. 초대형 스크린의 길이만 150피트로 이것도 미국교회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한다. 1868년 창립된 이 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다 사양길로 접어들어 거의 문을 닫을 위기까지 갔으나 2007년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가 부임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프리스 목사는 남침례회 소속의 보수적 목사로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동성결혼 반대자다. 제프리스 목사가 반동성결혼 설교를 하는 날이면 교회 밖에는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몰려 든다.

→ 3면에 계속

미국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워렌 목사 아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크리스천의 자살과 천국에 대한 주제를 다룬 칼럼을 게재했다.

짐 데니슨(Jim Denison)은 미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에 8일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주 새들백교회 주일 설교 제목이 ‘힘겨운 시간 살아남기(Surviving Tough Times)’였다. 워렌 목사가 이번주 초에 이같은 설교 내용을 결정했다고 알려졌지만, 이 설교를 자신에게 적용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에서 이들을



짐 데니슨

위한 애도와 위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USA투데이가 ‘워렌의 아들이 자살했기 때문에 현재 지옥에 있다는 일각의 주장으로, 워렌 목사가 힘들어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짐 데니슨은 “자살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이러한 개념은 가톨릭 교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온다”고 주장했다. 즉 살인과 같은 ‘치명적인 죄’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고백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은 이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이들이 지옥에 있다고 결론을 내려왔다는 것이다.

데니슨은 “그러나 가톨릭 교리문답서는 분명하게 ‘심각한 심리적 고뇌’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자살한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듭난 크리스천으로서 매튜(릭 워렌 목사의 아들)는, 그가 죽었을 때 자신이 하늘에 있을 것을 확신했다. 나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

→ 8면에 계속  
강해진 기자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임기 마치는 풀러 마우 전 풀러신학교 총장 “새로운 모형의 신학교 필요”

임기를 마무리하는 풀러신학교 리처드 마우 총장(Richard J. Mouw·사진)은, 수많은 교단과 신학적 다양성 속에 일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음주의 계통이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그가, 불문교나 힌두교 등 타 종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기에 이러한 발언이 더욱 주목을 끌었다. 마우 총장은 또한 21세기에는 신학 교육을 새로운 방식(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는, 새로운 모형의 신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우 총장은 최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미에서는 복음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풀러는 수많은 교단적·신학적 다양성 가운데 일치되는 것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북미 교회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마우 총장은 “미국은 복음주의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음주의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복음주의 4가지 중요한 요소’ 대해 언급했다.

마우 총장은 “첫째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이다. 교회 역사로부터 배울 것들이 많고, 다른 학자들에게도 배울 것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말로 우리를 설득해도 그것이 말씀에 위배된 것이라면 우리

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는 회심주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을 통한 회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주의의 핵심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다.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

교회 가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너를 선택했으니, 그 일에 훈련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우 총장은 이와 관련해 풀러신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 들어

는 이유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예수 십자가를 통한 사랑으로만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우 총장은 은퇴 이후 교수로서 활동하면서 전통적인 신학 교육 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뛰어들어 변화의 주역 돼야

SNS 활용 등 통해 젊은 세대 교육하는 방법 고민해야

수많은 교단과 신학적 다양성 속에서 다원주의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찾는 데 초점 맞춰야

수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다. 신학의 중심은 십자가여야 한다. 십자가가 빠지면 우리는 아주 비참해진다”고 했다.

또 “세번째는 세상에 들어가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칼빈의 선택 이론을 믿는다. 우리가 예정을 믿긴 믿는데 ‘무엇을 위해 예정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대선 때에도 대통령을 선택하지만,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국민들이 자신을 선택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선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

장히 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풀러가 수 많은 교단적·신학적 다양성 가운데 일치되는 것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안은 북미 교회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풀러가 지난 시간 고민했던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되는 것이다. 다원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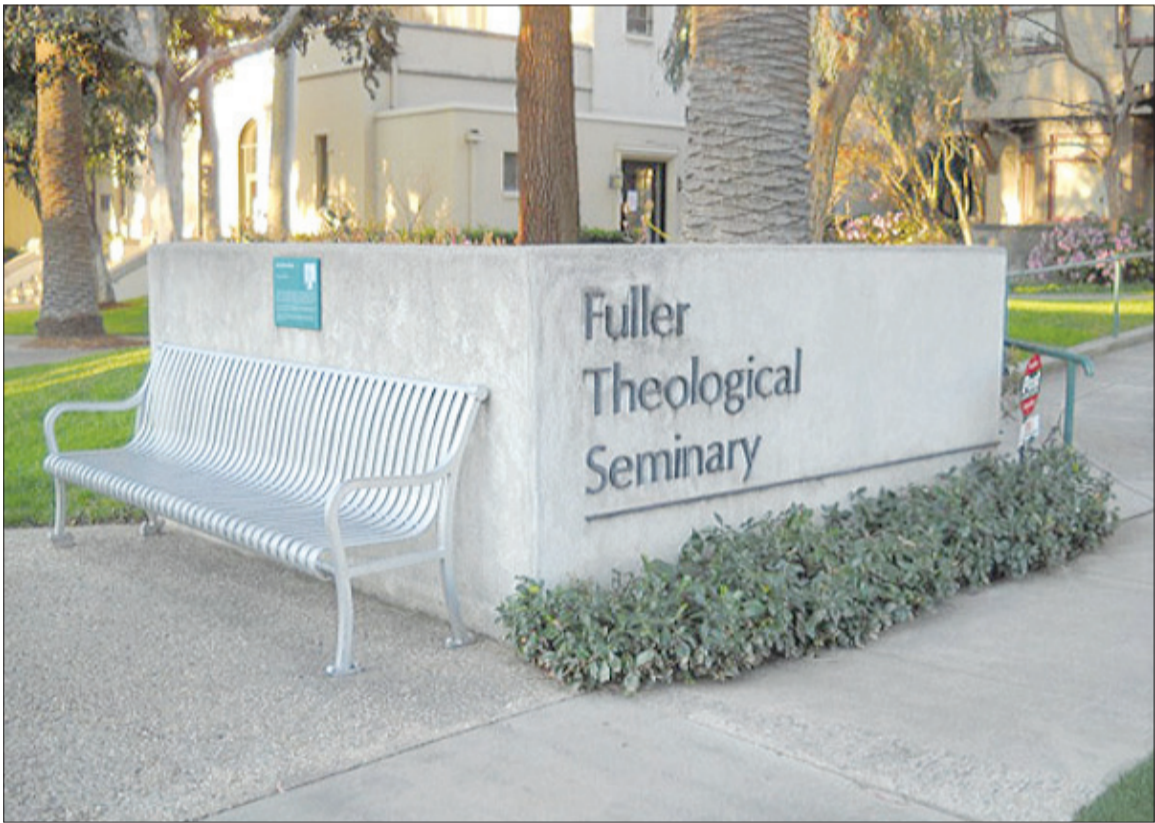
특히 “교회사나 조직신학 등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러한 전통적인 교육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 문화, 사회 현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우 총장은 “네번째는 종교 간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가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 기도할 경우,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이슬람이 우리 이웃이 되어서 함께 살고 있다. 손자가 2명 있는데 둘 다 무슬림과 함께 배우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불교 신자들도 있고, 힌두교 신자들도 있다. 종교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하

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신학 교육을 연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상담, 리더십, 청소년 사역, 결혼하지 않는 여성 사역 등 오늘날 사역의 현장은 굉장히 복잡하다. 중요한 전통적인 신학교육 위에 새로운 통찰력을 더해야 한다. 21세기에는 새로운 모형의 신학교가 필요하다”며 “신학교육 전파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하면서 ‘수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를 전파해 나갈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신학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목회자를 길러내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 예술, 사업적인 바탕을 비롯한 신학적 바탕을 갖고 그들이 속한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삶과 사역, 신앙과 삶의 영역 속에서 효과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퇴 이후 신앙과 공적인 삶을 연결시키는 교육 기관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를 통해 일터-신학-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풀러신학신학교 정문에 있는 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표지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LIC #0H66712

## 1948년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하나 건강 보험의 사무실에 오시면 5분이면 간단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받지않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를 신청 하면서 신청인의 매달 소득과 자산에 따라 자격이 되는 정부 혜택 (메디-칼, 메디케어 보험료 절약 프로그램, 처방약 비용 보조프로그램)도 같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2013년 9월 부터 시행 예정인 메디칼 메니지드 케어 (메디칼 HMO) 플랜이란?
- 2014년 부터 시행 되는 칼메디 컨넥트 (메디칼, 메디케어 통합 플랜) 플랜이란?
- 오바마 케어 플랜이란 ?

(상기의 세미나는 특정 상품을 광고 하거나 판매 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주제로, 하나 건강 보험의 데이빗 강이 세미나를 하여 드립니다. 장소와 시간은 아래와 같으니 많이 참가 하셔서 변화에 따른 이득과 불이익을 인지 하시고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예약 문의 사항은 TEL:213-500-4563 (전화를 받지 않으면 통화중 이오니 10분내로 전화 올리겠습니다.)

1. 4월 16일 2013년 3921 WILSHIRE BL #100, LA, CA, 90010 월서 양로 보건 센터.
2. 4월 19일 2013년 15719 VANOWEN ST, VAN NUYS, CA, 91406. 유어데이 양로센터.
3. 4월 22일 2013년 2001 W OLYMPIC BL, LA, CA, 90006 웨스턴 양로 보건 센터.
4. 4월 20일 21013년 520 S VIRGIL AVE #204, LA, CA, 90020 하나 건강 보험 사무실.

**DAVID KANG**  
LIC# 0F16211  
T. 213-500-4563

**☎ 213-500-4563**  
Customer Service

**LOS ANGELES**  
520 S. Virgil Ave. Suite 204,  
Los Angeles, CA 90020

### 동성결혼 반대하면 사역에 지장있다?



라스베가스제일침례교회

####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이 교회는 복음주의나, 보수주의나, 대형교회나, 아니나를 떠나 반동성결혼 교회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날 입당을 기념하는 예배에는 텍사스의 주지사인 릭 페리도 참석했다. 그는 "나의 깊은 찬사를 전하고 싶다(Let me add my profound, "Wow!")"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곳이 야말로 우리의 소금과 빛을 널리 보여 줄 수 있는 장소다"라고도 했다. 릭 페리의 방문은 두 달 전 팀 티보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독일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티보는 당초 이 교회에서 강연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반대에 밀려 결국 강연을 취소했다.

뉴욕 제트의 신실한 1등 쿼터백도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강력한 수비를 뚫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동성결혼자를 지칭한 듯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을 보다 밝은 세상을 원하는 이들과 나누며 살 것을 다짐한다"고 페이스북에 남겼다. 반면, 릭 페리는 철저한 반동성결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

혼 정치인이다. 그는 보이 스카우트가 동성결혼 논쟁에 시달릴 때, 동성애자 급지를 주장했고, 공공연히 "결혼은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밝혀 왔다. 그 역시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지만, 보수층을 중심으로 강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가 달라스제일침례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제프리스 목사에게 붙은 낙인인 "반동성애자, 동성애 혐오자"라는 낙인을 같이 받게 됐다. 이날 페리는 한술 더 떠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는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루이 기글리오 목사가 오바마 대통령 이취임식 축도자로 임명되었다가

사퇴한 일이다.

백악관은 그가 전세계 수천만 명의 현대판 노예를 구하기 위해 이론업적을 기려 그를 축도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며칠이 되지 않아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그가 십여년 전 반동성애에 설교를 한 것을 찾아내 반대 운동을 펼쳤고 기글리오 목사는 결국 사임했다. 백악관은 그의 사퇴를 받아들이고 즉시, 동성결혼 지지자로 잘 알려진 루이스 레옹 성교회 신부를 축도자로 뽑았다. 나아가 취임식 축시 낭독도 동성애자 시인 리처드 블랑코에게 맡겼다. 누가 보더라도 백악관이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입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세계 수천만 명의 인권을 위해 사역을 해도,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밀려 나게 된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을 구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해도 동성결혼에 반대하면 인권을 무시하는 교회로 낙인 찍힌다. 그렇다면, 동성결혼이 현대의 인간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김준형 기자

###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바로 '이것' 부터

#### 라스베가스장로교회 정공필 목사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흥'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터. 당연 교회들마다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재미있는 건 역사적으로 부흥을 원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부흥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라스베가스장로교회 정공필 목사(사진)가 바로 그다.

개혁주의 성향이 강한 정공필 목사는 "부흥에 대한 막연한 정의로 인해 혼동이 될 때가 많다"면서 "단순한 교인 수 증가가 교회 부흥의 전부"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가 말하는 부흥은 진리의 선포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일까. 그가 개척하고 있는 라스베가스장로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 공부에 올인하는 데 주력한다.

2007년 1월 16명의 성도들이 첫 주일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이 교회는 시작부터 여지껏 오로지 성경공부에 사력을 다해왔다. "수년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대해 너무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간 프로그램 등은 다 쳐놓고 오직 예배 드리는 것과 성경공부에만 집중해 왔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부터 시작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요즘은 교인들과 함께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 올해로 도미한 지 28년이 된다는 그는, 국제신학대학원(International School of Theology)을 졸업한 후 LA성도교회(현 예수마음교회)와 남가주 초대교회(현 하베스트교회)를 개척,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주변에선 그를 가리켜 1.5세 목사라고들 하지만, 정작 본인은 1세라고 고집한다. 엄밀히 말해 결혼하고 미국에 건너왔으니 그렇다는 것. 그러면서 "전 사실 1.5세라는 용어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그 단어를 만들어 놓음으로 편한 것도 있지만, 반



정공필 목사

대로 그 단어가 교회 안에서 세대를 구분해 놓는다는 단점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실제로 이 교회는 세대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구분을 '철폐'하겠다는 담임목사의 철학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젊은이들이나 근래 유학온 대학생들이나 심지어 나이 일흔을 넘긴 백발의 할머니까지 남녀노소 구분짓지 않고 누구나 복음 안에서 한 데 어우러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 재료들이 한 그릇 안에서 골고루 섞여 맛있는 맛을 내는 비빔밥처럼 말이다.

교회 이름에도 일부러 '한인'이라는 단어를 제외했다. 영어로도 'Las Vegas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여 'Korean'이란 단어가 없다. 한인뿐 아니라 영어권 자녀들을 비롯한 다인종을 수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 교회 목적문(Mission Statement)은 다음과 같다. "넓은 사랑 속에, 깊은 믿음 이야기를 나누는, 밝은 소망공동체"이다.

영어로는 "Love in Faith Enduring Hope". 여기서 넓은 사랑이란 주님과 이웃,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말하며, 깊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며, 밝은 소망이란 회복과 섬김과 연합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교회 주소: 4460 S. Durango Dr. Suite E Las Vegas, NV 89147  
▶전화: (702) 742-3324  
▶웹사이트: thinkhappychurch.org  
정하나 기자

### 일본 불교도가 바라본 교황 프란치스코는...

일본중앙학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가와모토 고이치 박사(사진)는 가톨릭뉴스 기고문에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의 물결이 더 크게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이 한 번 더 자기 신앙의 근본을 들여다보고 종교 본연의 자세를 응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11세기 무렵부터 새 교황이 선출되고 나면 바로 개명을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현 교황이 프란치스코라는 친숙한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찌시 프란치스코의 생활 방식을 표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화려한 생활을 피해 검소한 생활을 하겠다는 선언으로도 보인다. 새로운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인 것

을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빈곤 문제에 대처하려는 의욕은 높아 보인다"고 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종교성"이라며 "교황 프란치스코는 첫 강론(3월 14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복지 활동을 하는 NGO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는 세속성은 자기를 중심으로 두는 것이라며, 신앙에 의한 종교 활동과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을 분별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제가불교단체 릿쇼코세이카이 신

자로서 그는 "우리 불교도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새 교황의 발언은 이타행에 투철한 대승의 보살행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동 일본 대지진을 당했을 당시 우리도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 우리 자신이 한 번 더 자기 신앙의 근본을 들여다보고 종교 본연의 자세를 응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세계의 종교간 대화와 협력의 물결은 20세기 한복판에서 시작됐다. 우리는 그동안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 뒤 여러 곡절도 있었고 여러 변화가 일어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 4면에 계속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제,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복음주의 진영 “친동성애 스타벅스, 마셔? 말어?”



스타벅스 보이콧 캠페인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두 복음주의자가 스타벅스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기독교 저술가이자 남침례신학교 학장인 러셀 무어 박사와 어메리칸패밀리라디오의 사무총장인 버스터 윌슨 박사다.

스타벅스는 동성애를 기업의 중요 가치로 삼아 공개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매년 친동성애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는 큰 손이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관한 심리를 시작하자 가장 앞장서 지지 소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스타벅스의 동성애 지지 사실이 알려진 후, 보수적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Dump Starbucks 캠페인'에는 6만여명이 참여해 불매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무어 박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해야 하나고 묻는다면 난 ‘아니다’라고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기쁘게 한다면서 마귀가 좋아할 만한 방법으로 싸우곤 한다”고 혹평했다.

그는 “보이콧은 경제적 압박이다. 고객들이 기업의 수익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업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누가 더 경제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정리한 후, “그러나 이런 보이콧은 마치 결혼의 참된 정의가 더 큰 힘을 가진 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처럼 논점을 이탈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가진 결혼에 대한 신념

은 우리가 다수이거나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 나는 전통적 결혼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위를 벌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섬김을 통해 설득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보이콧이란 방법은 결혼의 정의를 성경이 아닌 힘을 통해 관철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윌슨 박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보이콧은 단순히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 내지는 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낙태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선거를 할 때 만난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던진다. 그리고 정치인

들은 우리의 표를 두려워한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성경적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사용하는 돈이 동성결혼을 지원하고 합법화하는 데에 사용되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이 기독교인의 돈으로 기독교인이 동의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까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기업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아마존, 시티그룹, 나이키, 오피스디포, 이베이, 페이스북 등 다수이며 이중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외에 홈디포 등이 기독교인들에 의해 보이콧 당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 릭 워렌 목사 아들 죽음 접한 美 교계 지도자들도

새들백교회 리 워렌 목사의 아들인 매튜 워렌(27)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슬픔을 담은 워렌 목사의 가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나누고 있다.

매튜 워렌은 짧은 생애 동안 평생을 정신질환과 싸우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에 관한 비극적인 소식은 새들백교회가 위치한 레이크 포리스트에서 토요일 오전 전해졌다.

비보는 미국과 전 세계에 빠르게 전해지면서 워렌 목사의 기독교 동료들의 즉각적인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

그렉 로리 목사는 트위터에 “릭 워렌과 케이 워렌을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의 아들 매튜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고 올렸다. 로리 목사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 크리스토퍼를 잃기도 했다. 그는 블

로그에서 “나 역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리크와 케이와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어렵기 때문에 나의 심정이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아무런 ‘말(word)’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Word)’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워렌 가족 모두와 새들백교회가 슬퍼하는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적었다.

대형교회 목회자인 T.D. 제이크스 목사 역시 “릭 워렌과 케이 워렌이 그들의 아들을 오늘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척이나 슬프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힐송 가수인 달린 책은 그녀의 트위터 계정에 메시지를 남겼다. “존경하는 리 워렌과 케이 워렌에게..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당신과 가족에게 함께 합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은 사랑과 위로 받고 있습니다.”

힐송 창립자이자 목사인 바비 휴스턴 역시 트위터에 “그들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리 워렌과 케이 워렌에게 가장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당신의 힐송 가족으로 부터”라고 남겼다.

런던에서는 존 프란시스 루아크 시티처치의 목사는 “릭 워렌, 나와 루아크시티처치 가족들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당신과 당신의 아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라고 위로했다.

비보를 전한 크리스천포스트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수 많은 독자들이 위로의 말과 기도를 남기기도 했다. 페이스북 사용자인 머나 산타마리아 바르세나스는 “우리의 기도가 워렌 가족들에게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한 명 한 명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남겼다.

데브라 파이크 역시 페이스북 페이지에 “하나님께서 큰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워렌 가족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 역시 형제와 어린 아들을 잃었기에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압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길 바랍니다”라고 언급했다.

새들백교회 성도인 스테파니 나바는 크리스천포스트에 이렇게 남겼다. “오 이런, 그의 소식을 듣고 매우 슬프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나의 목사님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처음 몇 년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은 놀라운 부부이고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케이와 함께 걸렸을 때도 잘 이겨냈습니다. 당신들을 서로에게 큰 축복이며, 주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서 “새로운 로마 교황의 탄생으로 종교간 대화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과거의 종교간 대화가 그대로 반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한층 수준 높은 대화를 지향할 수 있는 기회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나 인간의 고뇌는 변하지 않는다. 불교도로서 어떠한 신앙에 근거해, 무엇을 행해야 할지 끝없이 묻게 된다”고 했다.

고이치 박사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종교간 대화에 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사회 문제나 빈곤 문제에 관심이 깊은 교황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교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수반한 대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경제적으로 풍부한 나라와 궁핍한 나라의 격차 문제에 대해, 종교가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새 교황의 선출로 구체적인 종교간 대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의 근본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계속된다”고 했다.

##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北에 “국제교회 세우자”

프랭클린 그레함(Franklin Graham) 목사가 북한 정권에 기독교인 방문자들을 위한 교회 건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함 목사는 지난 2일 보낸 기도 편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이를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 BGEA)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그는 “난 앞서 부모님이 하신 것처럼 북한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그 곳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북한 개방의 기회가 열릴지 기도했다”면서 “마지막 방문에서 북한 관리들에게 평양에 본부를 둔 해외외교관, 사업가,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위해 새로운 국제 교회(International Church)를 세우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는 이후 뉴욕에서 북한

의 UN 대사를 만나, 일부 가능성 있는 약속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알려졌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만약 공식적인 승인이 결정난다고 해도, 진행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편지에 썼다.

그레함 목사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대남·대미 도발 수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전시상황 돌입을 밝히면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나 언론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개성공단을 가차없이 차단·폐쇄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이어, 지난 3일부터 우리측 근로자의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 '평신도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11년간 300명 전도한 전도왕 김인태 안수집사 초청 간증집회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11년간 300명 전도한 전도왕 김인태 안수집사가 말하는 전도노하우.....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전 성경을 7번이나 찢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전도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정**

4월10일(수) 오후 7시30분  
남가주 광염교회(정우성목사), 문의 T:213-598-0191

4월14일(일) 오전 11시  
나성 소망교회(김재욱목사), 문의 T: 213-550-7377

5월 4 일(토) 오후6시30분  
감사한인교회(김영길목사), 문의T:714-521-0991

■ 주 관 : 감사한인교회, 나성 소망교회, 남가주 광염교회 ■ 후 원 : 기독교일보

**약력**  
일본 아마노 아이꼬 미용학교 졸업  
독일 슈바츠코프 미용학교 한국강사  
영국 알란 인터내셔널 미용학교 강사  
88년 한국대표 아시아 미용선수권대회 우승  
프로 태권도시범단 봉사,공인태권도 4단  
나성 순복음 교회 안수집사  
나성 순복음 교회 11년째 전도왕



# 이단대책 세미나

The Christian Research Association Against Heresy in America  
미주 기독교 이단 대책연구회

## 2013년 4월 이단대책 예방 세미나

주제: 신천지 바로알기

일시: 4월 14일(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목사 시무)

주소: 8111 Walker St, La Palma, CA 90623

전화: 714.226.0300, 213.484.2574



**강사: 한선희목사**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예장미주합동총회이대위원장



# 청빙광고

### ● 교회 소개:

아름다운 도시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올랜도제일장로교회 (<http://orlandofirst.org>)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꿈을 품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지역 사회와 2세 목회에 헌신하실 목사님을 모십니다.

### ● 지원자격:

M.Div 이상, 목사안수후 최소 3년 경과하신분(담임목사 경험 있으신분 우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하자가 없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 분

### ● 제출서류 (하드카피 혹은 소프트카피):

- 자필이력서 (추천인 5인 성명, 관계 및 연락처 포함)
- 최종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 목회 계획서 (목회 동기, 목회 철학, 목회 비전)
- 최근 설교 두편 녹화 CD 또는 파일

### ● 제출처 및 방법:

#### ▪ 우편접수처:

First Korean Presby Church of Orlando (청빙위원회)  
140 Lake Rose Dr., Orlando, FL 32835

#### ▪ 이메일접수처 및 전화문의처:

FirstKoreanPresby@gmail.com  
716-912-0747(주인근장로), 407-592-1614(박현환집사)

#### ▪ 제출 시한: 2013년 4월 26일 도착분

\*우편제출 서류는 청빙절차 종료후 원하시는 경우 돌려드립니다.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들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 미주예장 서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열려

최인근 목사 “묵상 훈련 통해 은혜 받아야”

김성일 목사 “SNS 통해 복음의 역사 확장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서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가 1일 오전 10시부터 2일 오후 2시까지 나성서부교회(이정현 목사)에서 열렸다.

‘일어나라, 사명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서 사역자들은 부활절을 맞아 뜨거운 마음을 가슴에 안고 새출발 할 것을 다짐했다.

기도회에서는 엄영민 목사(부총회장), 김상덕 목사(전 총회장), 이정현 목사, 최인근 목사(시애틀 빌립보장로교회),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가 강사로 나섰다.

최인근 목사는 2일 오전 ‘이민목회 어제와 오늘’이란 제목으로 전한 강연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통해 깨닫도록 도와야 은혜를 받고 자기 것이 된다. 결혼 1년 만에 얻은 자식을 떠나보내고 40대 중반까지 외로움을 겪으며, 처가와 형제 자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며 “이민교회 교인들이 목회자를 안 믿는다는 것을 안다. 큰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교인들이 수평이동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될 거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강사로 나선 김성일 목사는 ‘컴퓨터 활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목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최인근 목사



김성일 목사

기자재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컴퓨터, 인터넷, SNS를 갖고 과연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21세기 사도 바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서두를 꺼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이용해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사역자들의 안 좋은 모습을 들춰내는 가짜 교인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역자들은 스마트폰 이용시 한국어/영어 양방향 자동통역앱인 지

니톡(GenieTalk)과 성경책, 찬송가 앱을 이용하면 좋다. SNS를 이용할 때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을 이용하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다른 SNS에 자동으로 링크가 이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다. 특별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접하는 접촉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년전 자살하려는 여인을 온라인에서 알고 이메일로 설득해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에 이어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스마트폰을 통해 카카오톡과 카카오톡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다”며 “한국식 페이스북이라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 개인적으로 아침에 성경 묵상한 것들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장군 됐을 때보다 복음 전하는 삶이 더 행복해”

나성제일교회, 김기홍 장로 초청 부흥성회 개최



김기홍 장로



5일 나성제일교회에서 창립 46주년 기념 심령부흥성회가 열렸다.

나성제일교회(김광삼 목사)가 창립 46주년을 기념해 심령부흥성회를 4일(목)부터 7일(일)까지 개최했다.

강사에는 김기홍 장로(전 해병대 부상령관, 소장)가 초청됐다. 김 장로는 깊은 산골짜기 대대로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13세에 예수를 영접했다. 문중 장손에 증가집 외아들이라 아버지의 반대와 몽둥이 타작을 견디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게 하시면 정말 잘 믿겠다”고 울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다 가난한 집안형편으로 등록금이 면제되는 대학을 가기 위해 김기홍 장로는 사관학교를 선택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골 고등학교에서도 기적적으로 합격하게 됐다. 김 장로는 이번 집회에서 “불가능한 여건에도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고 강조했다.

5일(금) 저녁집회에서 김 장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다.

그는 빛이 3억 가량 있는 데다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아내가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빛도 다 갚게 됐다”며 “교회생활이 어렵다고 결코 절망해선 안된다.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몇 천배로 갚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백령도에 교회를 세운 이야기, 진급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준장까지 진급하게 된 것, 강화도에 교회를 세운 것 등을 실감나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약점을 통해 축복을 허락하셨다. 산골짜기에서 자랐지만 어려울 때 많이 걸으면서 좋은 체력을 주셨고, 험난한 외모를 주셔서 해병대에 잘 적응하

게 해주셨고, 부끄러움과 말을 못하는 결점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피나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로는 “이 땅의 어떤 명예와 권세를 누려도 앞에서 볼 때는 좋아 보이나 지나고 나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다”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평강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한 믿음의 삶이다. 지금까지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장군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아니다. 제대하고 나서 19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 전세계를 다니며 간증 집회를 다닌 것이 가장 신나고 행복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홍 장로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를 졸업하고 대전 목원대학교 교수로 있으며 국내외 3200여 성회를 인도한 바 있다.

## BIZ

# 베스트 영어 훈련원

〈베스트 영어 훈련원〉은 생활영어를 말할 수 있게 훈련(연습)하는 곳입니다. 현재 LA 한인타운과 플러튼에서 영어회화를 할 수 있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하고도 말을 못하는 것은 공부만 하였지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어회화는 말하는 기능이지 학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문으로만 공부하였던 것입니다.

스키 선수가 훌륭한 스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스키 이론을 10% 정도 공부하고 90%는 실제로 스키 타는 연

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 것은 100% 스키 이론만 공부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결과로 한국에서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도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베스트 영어 훈련원〉은 가장 좋은 교재를 가지고 실제로 말하는 훈련을 합니다. 교재에는 상황이 설정된 대화가 나오고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구조와 미국식 발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팀을 나누어 실제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12주(3달) 프로그램으로 LA와 플

러튼에서만 23기를 끝내고 현재 제24기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 왜 3개월 단위로 훈련(연습)해야 하는지와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듣고, 등록하신 후 훈련을 시작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누구나 이곳에서 훈련(연습)을 하면 영어회화가 가능합니다.

▶LA 훈련장소: 3251 W. 6th. #101 LA, CA 90020 ▶플러튼: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전화: (213) 239-4815, (213) 507-0691

# NYSKC LEADERSHIP ACADEMY 2013

**WHEN THE WORSHIP IS RESTORED  
THE CHURCH IS RISEN  
THE NATION IS RENEWED  
AND THE FAMILY IS REVIVED**

예배회복

*Restoration of worship*

##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 SEND THE SPIRIT IN FULLNESS TODAY!

(1 KINGS 18)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Goshen Choi  
NWSM 대표회장  
뉴욕서광교회



**대회장**  
**김은목 목사**  
Ezra E. Kim  
LA평화교회  
GTS Prof.



**준비위원장**  
**전남수 목사**  
David N. Jeon  
AR 제자들교회  
GTS Prof.

#### 강사:

Goshen Research Institute (GRI)

- 김기철 목사 (Elim Ki. Kim, Chicago, 제자들의 교회, GRI Prof.)
- 노병철 목사 (Samuel Byung Roh, Toronto, 초대교회, GRI Prof.)
- 문상면 목사 (Sang Moon, 쎄리토스 우리교회, GRI Prof.)
- 안형기 목사 (Hyunki Ahn, Chicago, 벨엘 한인 침례교회, GRI Prof.)
- 주성철 목사 (Randy Sung Ju, Denver, 든든한 교회, GRI Prof.)
- 이용화 목사 (Troas Yong. Lee, Montreal, 로고스 교회, GRI Prof.)
- 윤성열 목사 (David Sung. Youn, Albuquerque, 알버커키 한인 침례교회, GRI Prof.)

Goshen Theological Seminary (GTS)

- 강효열 목사 (David H. Kang, Ohio, 데이튼 아가페 교회, GTS Prof.)
- 류경렬 목사 (Boaz Ru, Maryland, 서광교회, GTS Prof.)
- 유제시 목사 (Jesse E. Yu, Toronto, 서광교회, GTS Prof.)
- 최기성 목사 (James K. Choi, New York, 은혜와 사랑의 교회, GTS Prof.)
- 최태영 목사 (Immanuel T. Choi, Toronto, 충신 교회, GTS Prof.)
- 황디모데 목사 (Timothy Hwang, Montreal, 서광교회, GTS Prof.)

### 참가대상: MS, MS II, Mas, Mas 후보생

### 4월 29일 (월) - 5월 2일 (목) 2013년

#### 장소: 알칸사 제자들 교회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 jejas.com / (501) 920-9049

## NYSKC WORLD MISSION

*Restoration of Worship*

루이 기글리오 목사, '엔드잇 운동' 알리기 대규모 행사

“현대판 노예’ 전 세계에 2700만... ‘그것을 끝내자”



루이 기글리오 목사가 '2012 패션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던 모습

전 세계적인 현대판 노예 반대운...

it Sunday'고, 다른 하나는 '노예의...

'엔드잇 운동(End it Movement)'...

몇몇 주목할 만한 교회들이 이 운...

에틀렌다 패션시티 교회를 이끌고...

윌리스는 “엔드잇 선데이’ 행사를...

그는 “정말로 창의적 방식들이 우...

조지아 돔에서 매년 1월마다 패...

고 있다. 올해 패션 컨퍼런스에는...

11일 열리는 '노예의 날에 빛을 발...

기글리오 목사는 앞서 CNN과 가진...

백인 복음주의자들, 이민법 개혁에 가장 부정적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이민자들에 대한 지지 낮아

복음주의 계열에 속한 백인 기독교...

많은 복음주의 계열 목회자들과...

못하고 있다.

공공종교조사기관(Public Religion...

PRRI 연구결과 미 전체 인구 가운...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서 백인...



최근 발생한 반이민법 저지를 위한 시위 장면

강하게 하는 대신 짐이 된다’는 생각...

PRRI에서는 ‘미국의 대다수 인종...

폴 듀프 PRRI 소속 연구원이자 덴...

크리스천포스트 측은 이민개혁을...

올랜드의 퍼스트뱀티스트처치 담...

그는 또한 “목회자들이 위와 같은...

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휴스턴에 위치한 포레스트침례교...

플레밍 박사는 “목회자들과 기...

이민자들에 대한 지지 입장인 남...

리처드 랜드 박사는 동시에 “이...

병도 포함돼 있다(로마서 8장 22절).

기사가 1면으로부터 받음

데니슨은 또한 병이 타락의 결과가...

그는 “지옥에 대한 단언이 궁극적...

이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Advertisement for Mystylist hair salon. Features a map of the location at the intersection of Western and 3rd, a photo of the building, and promotional offers like 'Men's haircut \$8' and 'Hair color \$30 up to \$100 up'.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무료증정



# HQ 구연산 사랑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원산지 개선과  
원산지 인증에  
우수한  
일파 구연산  
\$50  
ea + tax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270 ~~\$100~~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280 ~~\$100~~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 신제품 출시 안내

HQ구연산을 원료 그대로 물에 타서 드시다 보면 치아가 염려되고 신맛으로 인해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캡슐 제품을 내 놓습니다. 구연산과 아사이베리, 마카, 과라나, 미국 야생 산삼 등을 넣어서 위장을 보호하며 보다 더 강력한 HQ구연산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오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몰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고 관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과대학이나 약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기편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육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로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Life



## 기쁨의 가정

## 10대 1의 원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기에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잘못된 것을 교정하려는 의도로 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하는 것을 '긍정적 표현'으로 강화할 때 변화가 더 용이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나아가 대인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양치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양치질을 다 하나? 정말 우리 딸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딸 아이는 기분이 무척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제 앞에 와서 양치질을 또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긍정적 표현과 칭찬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긍정적 표현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분일 수록 긍정적 표현에 굶주려 있을 경

우가 더 많습니다. 긍정적 표현을 더욱 많이 들어서 불편함 없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호주가정상담대학에서는 10대 1의 원리를 가르치고 권합니다. 이 원리는 간단한 것으로, 한 번의 조언이나 책망과 같은 부정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의 긍정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인내하며 10번을 세어보면서 긍정적 표현을 하고, 그 후에 진짜 꼭 하고 싶었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 표현을 일상화할 때 조언이나 책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가는 한 청년의 국선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그 청년의 자료를 보았는데 IQ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자네는 머리가 상당히 좋네, 공부를 하면 아주 잘하겠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 그 후로 그 청년은 소년원에 들어가지 않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공학계통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후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인의 기억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어떤 도움을 자신이 주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제가 머리가 좋다고 당신이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들었던 그 말이 그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긍정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표현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거센 바람이 아닌 따스한 태양이 사람의 옷을 벗긴 것처럼, 거친 말보다는 따스한 표현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강의에서 이 내용을 다룬 후, 그 다음 학기에 한 권사님 학생이 오셨습니다. 꾸벅 인사를 크게 하는 데 얼굴이 유난히 환하게 빛났습니다. 잔뜩 흥분된 모습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저의 아이들도 변하고 머느리도 변하고 손주들도 다 변했어요!". 권사님 자신이 긍정적 표현을 하기 시작하니 주위에 있는 가족 모두가 밝아지고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젊은 이야기는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한번 무엇인가 어머니의 마음 속에 있는 표현을 하면 우리 6남매 모두 긴장합니다. "오죽했으면 엄마가 저런 표현을 했

을까?" 하며 모두 소홀히 넘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훈육이나 조언을 진정으로 잘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 표현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긍정적 표현 10번에 부정적 표현 1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때로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너무 커서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달래주어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분이 생일을 챙겨 주지 않은 남편이 야속하고 밍숭 밍숭한 것이 그 날 함께 되살아나 마음을 괴롭힙니다. 더 이상 남편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내 생일을 잊어 버린 것은 참 유감이고 섭섭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부정적 감정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것

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편에게 부정적 감정을 폭탄처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칭찬하며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성령님의 깊은 도우심을 구하며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나를 통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표현을 들은 가족과 이웃이 선한 영향을 받게 하며 세상이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글=기독교상담학 박사 김훈 목사  
 <약력>  
 -호주가정상담대학 한국어 통신과정 디렉터  
 -호주가정사역센터 대표  
 -전 캔버라 열방대학 성경연구학교 교장  
 -기독교 상담학 박사  
 -고려대학교 국제경영 석사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충신대학 신학과 졸업

## 건강 칼럼

## 갑자기 손이 빠근... 손목터널 증후군 예방하려면

주부 최선영(54) 씨는 몇 주 전부터 손이 묵직하고 빠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밤이면 손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과 함께 손가락 마디마디가 쭈시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손을 털거나 몇 번 주무르면 이내 통증이 사라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는데도 뻣속까지 저릿저릿한 느낌에 '악'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최씨에게 내려진 진단은 손목터널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보통 검지와 중지, 약지에 이상한 감각이나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초기 증상으로, 비만이나 당뇨를 갖고 있거나 갑상선을 앓는 이들에게 발생하기 쉽다. 임신 중이거나

폐경을 이제 막 시작한 여성에게도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손과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주부들에게 흔한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보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은 14만여 명의 환자 중 80%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험한 것은 이런 손저림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시기를 놓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의 인대가 손에서 팔로 이어지는 신경관을 눌러 압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강남중앙병원 황순호 원장은 "초기에는 손이 저리거나 손바닥이 빠근한 느낌이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손바닥 안쪽 근육이 위축되기 시작

하면서 손에 힘을 주거나, 물건을 잡는 일도 힘들 수 있다"고 말한다. 단추를 잡거나 젓가락질이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자가 진단을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먼저 양 손목을 안쪽으로 구부린 채 손등을 맞대고 1분 정도를 유지해보자. 이때 손가락과 손의 감각에 이상을 감지하거나 통증을 느낀다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손목터널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목터널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사를 할 때는 양손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걸레나 행주를 쥐어짜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무거운 물체를 옮길 때는 손아귀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해야 할 때면 손목이 너무 꺾이지 않도록 조심하자. 무엇보다도 틈틈이 손목과 손가락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손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털어주고, 깍지를 낀 채로 앞으로 쭉 펴는 동작으로 손목 근육과 인대를 단련시키면 도움이 된다. 다행히 조기에 진단을 받아 치

료를 시작한다면 손 사용을 줄이고 1~2주간 부목으로 고정할 수 있다. 통증이 있다면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손목터널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아 증세를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만약 3개월에서 6개월간의 비수술적 치료에서도 호전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수술이 최선책이다. 수술은 눌린 인대를 잘라내어 신경관을 넓혀주는 것으로 부분 마취와 절개로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속하며 결과가 좋은 편이다. 물론 수술 전에는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수술과 마취의 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상희 기자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황수원목사, 총장 강부용 박사, 재단 이사장 류당열 목사

# 살아있는 역사들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교회를 섬기는 즐거움 중의 하나는 믿음으로 한 평생을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어느 어른이든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면 너무나 귀한 사연들이 많다. 그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하면 몇날 며칠을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인데 나처럼 전후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일제시대를 거쳐 분단 그리고 6.25 동안 등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살아있는 역사책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우리 나이 또래만 해도 일본의 침략과 핍박은 그저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을 뿐 실제적인 체험이 없다. 그러나 드문드문 일제시대를 지내온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속에서 겪었던 고난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일제시대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말을 못하게 해서 많이 힘들었다는 이

야기, 더러는 일본식 교육에 익숙했던 나머지 일본이 우리나라인 줄 알고 있다가 일본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영 울었다는 이야기, 징용을 당해 동남아의 전선을 떠돌던 이야기나 혹은 징용을 피하기 위하여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그 시대의 일들이 생생하다.

해방 이후 한국의 모습은 어땠을까? 큰 사건들이야 책에서 배우지만 역사나 살아있는 증인들을 통해 듣는 증언만큼 생생한 것은 없다.

오래 전 돌아가신 한 집사님은 해방이 된 직후 북한에서 소련군을 안내하는 일을 보다가 겪은 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련군이 동네에 들어가 부녀들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총을 들이대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집사님이 솔테면 쓰라고 대들자 소련군은 식식거리며 총을 거두고 떠나더라는 말씀도 하셨다. 그 집사님은 그저 지나온 이야기로 하셨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그 집사님을 마음으로 존경했었다.

또 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은 어린 시절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올 때 멋모르고 꽃을 들고 나아가 그를 환영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그리고는 마침내 비극의 6.25 동란이 터졌는데 이 또한 전후 세대들로서는 글이나 사진을 통해서 볼 수 밖에 없는 역사다. 그러나 온 몸으로 전쟁을 체험한 증인들의 이야기는 역사 그 이상이다.

어느 분은 전투에 참여했다 부상당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 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때 전쟁의 끔찍한 참상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어느 장로님은 중공군 개입 시 현장에 있다가 피리를 불며 개미 떼처럼 몰려오는 중공군들을 목격하셨는데 개중에는 미처 무기가 없어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목격담을 들으면 지금도 중공군의 피리소리와 함성이 들리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때론 역사적인 영적 부흥의 현장을 몸으로 체험한 증인들도 드문드문 계신다. 산정현교회를 다니고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초기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누셨던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아쉬운 것은 이런 역사와 믿음의 산 증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역사를 들을 때마다 그것들을 좀 기록해 두시라고 부탁은 드리지만 연세 드신 어른들이 현실적으로 그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다. 어찌 됐든 핵가족 시대 혈연의 가족과 비교할 수 없이 넓고 큰 교회 가족 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이런 산 교훈과 지식들을 얻는 것은 또 다른 은혜이다. 부디 귀한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건강 장수하시셔서 젊은 세대에게 살아있는 교훈들을 더 많이 남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 십자가와 부활로 이룬 승리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사탄의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한다. 십자가의 방법이 사탄을 결정적으로 손상시키지만, 그리스도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십자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는 승리와 영광을 거둔다. 그 싸움의 목표는 예수님 자신의 존립과 평안이 아니었다는 사실 속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출애굽기의 불뱀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밝히 보여 준다. 불뱀이 나무 위에 달린 것은 불뱀에 물린 백성의 치유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의 의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는 일, 즉 백성의 죄에 대한 대속(代贖)에 있다. 여기에 이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목표는 백성을 얻는 것이요, 이 사명의 완성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완벽한 제물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완수를 보여준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의 모든 완성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 고난 당하는 종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사가 53장을 비롯한 모든 예언의 성취가 십자가를 통하여 완결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는 일에만 한 성공적인 사역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를 보여준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악한 영적인 세력에 대한 승리, 즉 세상 임금에 대한 승리이다. 세상 임금은 옛 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용, 거짓의 아비, 낮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마귀 등으로 불리는 사탄이다. 이 사탄은 세상을 통치하는 일정한 정도의 한정된 권세를 가지고 일해 왔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떨어진 인간을 사탄이 다스리는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사탄에게 결정적인 패배와 퇴각의 시간이 왔다. 악한 지혜와 술수를 다하여 메시아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비참하게 돌아가신 의로운 그리스도가 그 무죄한 피로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사탄으로서

는 제 꾀에 넘어가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이나 사탄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이나 세상보다 강하다(고전 1:25).

둘째로 세상 임금의 실패는 세상의 실패이다. 세상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사용하는 세속적인 시스템이다. 그리스도의 코스모스(kosmos)라고 불리는 세상은 악한 구조, 악한 체제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왕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세속적인 능력이다. 이 범죄적인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정죄함을 받았다. 세상은 창조자요, 섭리주요, 구속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므로 정죄 받았고, 그 뒤에서 일하던 세상 임금 또한 동일한 정죄를 받아 자기의 세력을 상실하였다. 이제 타락한 체제는 신속하게 약화되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에 내어주는 상황이 되었다.

셋째로, 세상 임금이 가질 수 없어 포기한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세상의 능력을 가진 악인들은 두려움과 이

세상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붙들어 두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와 그 체제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있다. 복음의 은혜로 견고하게 세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교회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곳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마 16:18).

이제 남은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임금은 두려움과 속임수로 세상의 영광을 미끼로 삼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공격을 위한 교두보(bridgehead)와 전진기지를 마련하려고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조차도 성령의 내주하시는 터가 되게 하므로 사탄의 공격을 퇴각시키고 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의 그 승리가 현재가 되어 약동한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국,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562-467-1114  
cerrit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봄맞이 세일  
목회자님 위한 세일 20%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래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975 S.Vermont Ave.#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끝장나야 한다



고 승 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복음주의적 정통 기독교를 종종 비판했던 엘더스 헉슬리(영국의 소설가 및 평론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정작 이 기도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종교개혁 이전에 독일에서는 요한네스 툴러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틀림없이 루터 시대 이전의 복음주의자였다.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느 날 니콜라스라고 불리는 경건한 평신

도 농부가 시골에서 툴러 박사를 찾아왔다. 그는 툴러 박사에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툴러 박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들의 죄와 이기심을 버리는 26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그의 설교는 훌륭했다.

예배가 끝나고 회중이 흩어졌을 때 툴러 박사가 분당 중앙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러자 그 경건한 농부가 이렇게 말했다. “툴러 박사님, 참으로 훌륭한 설교입니다. 박사님이 전한 진리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박사님의 설

교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툴러는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니콜라스는 말했다. “박사님은 오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박사님은 깊은 영적 원리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박사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박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운 것이 많고 학구적인 툴러 박사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구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툴러 박사는 설교단에 서지 않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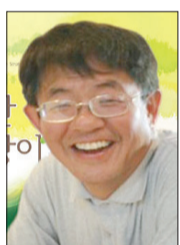
다. 대신 그는 성령님께 객관적 진리를 깊고 뜨겁게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다.

영혼의 고뇌로 얼룩진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는 날이 찾아왔다. 성령님이 큰 강물처럼 그의 삶에 임하셨다. 교구로 돌아와 다시 설교단에 선 그는 당대에 가장 뜨겁고 위대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설교자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 그가 먼저 죽어야 했다는 영적 원리이다. 바로 이 원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 2:20)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다.

- A.W.토저, “내 자아를 버려라”-

#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일곱째 지팡이



이 학 진 장로  
사랑의빛선교회

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언약을 버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고통 당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선지자는 미래에 대해 말하는 예언자들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겐 25-39에 있는 다양한 예언들은 주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운명들을 다루고 있는데 예언이 선포된 지 수십 년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셋째, 이렇게 선지자의 영성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말씀하고 심판을 경고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참고로, 제사장의 영성은 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다섯 권의 대 선지서, 이사야서의 66장은 성경의 66권과 같은 뿐 아니

라 1-39장은 구약적 성격을 포함하며 앗수르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강조되었으며 메시아는 이세의 줄기에서 난 싹으로 인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11장).

반면에 40-66장은 신약적 성격으로 바벨론이 중심이 되고 있고 구원이 주요 내용으로 여호와와 종으로서의 신적인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53장).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거둬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징계를 눈물로 선포하면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면이 본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2-24장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46-51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애가의 원어는 ‘에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도가 혹은 장송가로서 모두 5개의 비탄에 가득 찬 본서는 백성들의 죄로 인한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들, 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희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여호와인 왕 때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바벨론에 의하여 2차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강 근처의 텔아빔에 거주하며(30세, 겐 1:1)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포로로 잡혀와서 귀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묵시적인 기술을 특징으로 하여 구약의 묵시록이라 불리우는데 바벨론의 포로시대부터 역사의 종말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헌신(1장)과 이스라엘의 장래(8-12장)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방 열국들의 장래(2-7장)는 아람어로 기술되어 있으며 1-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7-12장은 환상을 통한 예언이라고 구분짓을 수 있습니다.

열두 권의 소 선지서는 그 이름 뜻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호세아의 의미는 ‘구원’이며 요엘은 주의 날 또는 여호와 의 날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나의 하나님’이고, 아모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이 무겁다는 의미의 ‘짐’ 혹은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오바다, 에돔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주의 종’ 또는 ‘주를 경배하는 자’이며 요나, 이방인(니느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 하심으로 이름의 뜻은 ‘비둘기’이고, 미가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아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라는 의미입니다. 나훔, 니느웨에 대한 예언으로, 위로 혹은 연민이며, 하박국, 이름이 ‘포옹’이라는 의미를 가진 선지자이고, 스바냐, 여호와와 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다’는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학개란 ‘축제’, ‘절기’ 등을 의미하는 이름이며, 스가라는 ‘여호와께서 기억 하신다’는 축복의 뜻이고, 말라기,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으로 ‘내 사자’를 뜻합니다.

#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생생한 기사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는 정직한 신문 **기독일보**



#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 복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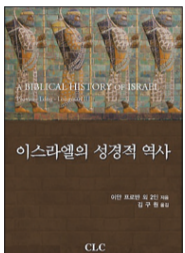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  
이안 프로반 외 | CLC | 656쪽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성경비평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며 구약에 나타난 역사적 서술이 분명히 실제 사실을 증언한다. 저자들은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와 그 해석인 증언, 고대 근동의 문학과 달리 역사적 소재가 풍부한 문학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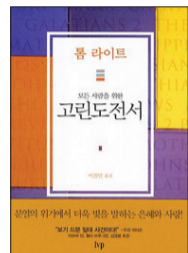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다섯달라트 | 터치북스 | 232쪽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대부분 일상 속에서 이뤄진다. 삶이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덮여 있는데도, 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한다. 책은 이러한 기억의 실마리를 찾으려 아름다운 사진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목상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고린도전서  
툼 라이트 | IVP | 330쪽

바울의 목회적 감수성과 깊은 통찰력이 한데 어우러진 고린도전서는 그의 최고 걸작 가운데 하나다. 톼라이트는 학자적 시각과 더불어, 명료한 예화와 가벼운 문체로 1세기 국제 도시 고린도 교회를 우리 앞에 생생하게 보여 주고, 바울 서신의 지혜와 도전을 펼친다.



하나님이 부활절을 주셨다  
리사 타운 버그렌 | 몽당연필 | 36쪽

전세계 150만부 이상 판매된 시리즈의 최신판. 파스텔톤의 세련되면서도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따뜻한 동물들의 표정이 감성을 키워준다. 글로 표현 못한 텍스트를 그림으로 다시 읽을 수 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 곰이 등장해 책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 REVIEW

## “부활 신앙 지닌다는 것은, ‘믿음의 여백’ 갖는 것”

### 이재철 목사의 <사도행전 속으로 7>에 담긴 부활 메시지

이재철 목사의 <사도행전 속으로 7(홍성사)>은 '사도행전 13장' 강해 설교(그의 말에 따르면 순서설교)집이다. 이 목사는 2009년 10월 18일부터 2010년 7월 18일까지, 장장 9개월간(36회) 사도행전 13장 한 장을 풀어나갔다.

그는 종교개혁주일을 비롯해 추수감사주일, 대림절, 송년·신년주일, 사순절과 종려·부활주일, 성령강림주일과 심지어는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주일까지 사도행전 13장 '순서설교'를 멈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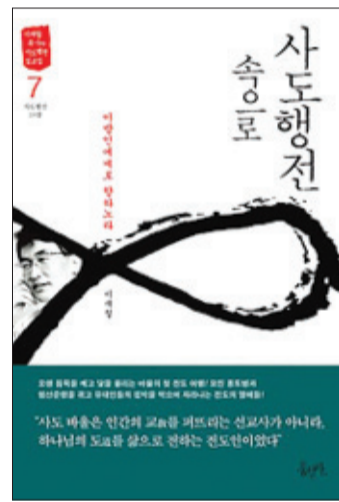
이 목사는 이에 대해 “주일예배에만 참석하는 대다수 교인들은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설교자가 선호하거나

의도하는 구절에 대한 설교만 듣게 되는데, 이러서는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기 힘들다”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 주일 본문 구절의 깊이와 성경 전체의 넓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순서설교를 하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들여다보면, 먼저 사도행전 13장의 시작에 등장하는 '안디옥교회'의 지도자 5명이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이었음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데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보편적 교회를 이뤘다”며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 하시기에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신들

을 자유롭게 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다”고 고백한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해 '개혁'의 대상이 된 것도 결국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철 목사가 100주년기념교회에서 모든 지출항목을 1원 단위로 매달 성도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장로·권사 호칭제를 시행하는 '개혁적' 조치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 교회를 개혁적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투명한 재정보고나 호칭제 자체는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개혁의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진정으로



사도행전 속으로 7  
이재철 | 홍성사 | 492쪽

사랑하는 것만이 참된 개혁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재정보고는 자신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응답, 호칭제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기 위한 일 뿐이다.

안디옥교회가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듯, 13장을 읽어가면서 100주년기념교회도 양화진외국인선교사지원과 용인순교자기념관을 관리·보존할 뿐 아니라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려 선교지를 확장했다. 양화진 관련 역사자료 발굴과 보존 및 전달을 위한 기관이었던 양화진연구원을 2010년부터

**포르테**  
**세종 송보감**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식약청 공인)  
“참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KFDA공인 건강기능식품  
▪ 1박스(1개월분) 195볼 ▪ 1박스(3개월분) 360볼

**세종바이오텍**  
Biotech SEJONGBIOTECH, INC.

**세종 오로청보감** 신제품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하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Tel.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 (미주복음방송국4층)

**진짜 발효삼? 진짜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WIN HYUNDAI at El Monte**

<b>EQUUS SIGNATURE 2013</b>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b>\$499 Lease</b> per month plus tax	<b>SONATA GLS 2013</b>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b>\$109 Lease</b> per month plus tax	<b>ELANTRA GLS 2013</b>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3,199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b>\$99 Lease</b> per month plus tax	<b>ACCENT GLS MT 2013</b>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b>\$89 Lease</b> per month plus tax
---	--	--	--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4월17일 까지입니다.  
Assurance  
**Tel. 888.409.3002**

HYUNDAI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 새 교황의 이름, '성 프란치스코'는 '원초적' 복음주의자?

## '평화의 기도' 저자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달라



로렌스 커닝햄 | 포이에마 | 224쪽



성 프란치스코가 나오 자란 아씨시에 위치한, 성 프란치스코 성당 내부. 아씨시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프란치스코'라 알려진 평화의 예언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266대 교황에 선정된 아르헨티나 추기경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하고, 이름에 걸맞는 검소와 소탈의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12세기 가톨릭 성인이자 비기독교인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평화의 기도'를 쓴 것으로 잘 알려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1181-1226)'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타임지>가 2000년을 앞두고 지난 1천년간 등장한 인물 중 가장 중요한 10인 중 한 명으로 종교계 인사로는 마르틴 루터와 함께 유일하게 선정될 만큼, 서구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이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제야 처음 탄생한 것 자체가 의외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최근의 책을 꼽자면 포이에마의 <가난한 마음과 결혼한 성자 아씨시의 프란체스코>가 있다. 지난 2010년 나온 이 책은 일화 중심의 감상적·낭만적 '포장'이 아닌, 철저하게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맨얼굴'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저자인 로렌스 커닝햄[노트르담대]은 오랫동안 성 프란치스코를 깊이 연구해 온 인물이다.

프란치스코는 젊은 시절 그저 방탕

한 부잣집 아들에 불과했으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 차례 회심을 경험한다.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사치와 천박함으로부터 회심하면서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거부하게 됐다. 그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세속적인 옷가지들을 벗어던졌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는 옛 삶을 버리고 가난한 그리스도를 뒤따르기 위해 자선에 의지해 살아가는 떠돌이 평신도 설교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제266대 교황에 선정된 아르헨티나 추기경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하고, 이름에 걸맞는 검소와 소탈의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12세기 가톨릭 성인이자 비기독교인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평화의 기도'를 쓴 것으로 잘 알려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1181-1226]'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타임지>가 2000년을 앞두고 지난 1천년간 등장한 인물 중 가장 중요한 10인 중 한 명으로 종교계 인사로는 마르틴 루터와 함께 유일하게 선정될 만큼, 서구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이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제야 처음 탄생한 것 자체가 의외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최근의 책을 꼽자면 포이에마의 <가난한 마음과 결혼한 성자 아씨시의 프란체스코>가 있다. 지난 2010년 나온 이 책은 일화 중심의 감상적·낭만적 '포장'이 아닌, 철저하게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맨얼굴'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저자인 로렌스 커닝햄[노트르담대]은 오랫동안 성 프란치스코를 깊이 연구해 온 인물이다.프란치스코는 젊은 시절 그저 방탕한 부잣집 아들에 불과했으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 차례 회심을 경험한다.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사치와 천박함으로부터 회심하면서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거부하게 됐다. 그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세속적인 옷가지들을 벗어던졌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는 옛 삶을 버리고 가난한 그리스도를 뒤따르기 위해 자선에 의지해 살아가는 떠돌이 평신도 설교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로 시작되는 기도문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사실은 20세기 초에 쓰였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다. 진실은 이렇다. '프란치스코적 감수성'을 반영한 이 기도문은 1913년 프랑스 노

르망디에서 발간된 소박한 대중잡지에 익명으로 처음 게재됐고, 1915년 가톨릭 주간지 '소베니르 노르만드(Souvenir Normand)' 창간인 마르케틀라 호슈튀롱이 다른 기도문들과 함께 이를 당시 교황에게 보냈다.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어서 이 기도문은 여러 차례 반복 회자됐지만, 이 때만 해도 프란치스코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그러나 1916년 바티칸 신문 '오서바토레 로마노(Osservatore Romano)'에 실린 후 프란치스코회에 속한 한 프랑스인이 한 모금행사 포스터에 프란치스코가 이 기도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이름과 결합되기 시작했다.

포스터에는 "이 기도문은 프란치스코회의 이상을 잘 요약하고 있으며 우리 시대의 긴급한 현안에 대한 응답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이 실렸다. 저자는 이에 대해 "기도문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 기도문이 성인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에 대체로 수긍할 것"이라며 "이 기도문의 영적 메시지 뿐 아니라 문체도 성인과 일치하고 있고, 그의 관후한 영혼에도 잘 들어맞는 헌사"라고 평했다.

이대웅 기자

양화진문화원으로 확장 개편, 양화진의 정신을 문화로 통해 세상에 전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봉사를 시작한 것. 이어령 박사를 명예원장으로 초빙한 양화진문화원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활절이니, 이차절 목사의 부활절 설교를 들여다 보자. '하나님이 살리신지라(26-30절)'에서 이 목사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의해 못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 삼아 인간을 죄와 사망의 멍에서 구원하시리라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못박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도리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롭게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여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나를 탈피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믿음의 여백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백'은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묻히신지 사흘째 된 무덤에도 나타났다. "그 여백은 인간의 죽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여백,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백, 인간의 절망을 소망이 되게 하는 하나님 사람이 충만한 여백, 인간의 종결을 영원과의 접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으로 이어지는 여백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가 바로 그 여백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바로 그 여백, 그 '믿음의 여백'을 지니는 것이다.

그 여백이 클수록,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여백 속에 더 크게 역사한다. "그 믿음의 여백을 지니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 수준과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은총으로, 소망으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어

린 시절 친형의 죽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는 '죽음을 죽음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의 여백'이 생긴 후, 모친의 소천에도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책에는 '부록' 격인 '절기에 따른 이차절 목사의 메시지' 소책자도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도 부활절 관련 언급이 들어있다.

이대웅 기자

"십자가란 피하면 피할수록 무거워지지만, 고난을 두려워 않고 지기만 하면 날로날로 새처럼 가벼워진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고난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이란 모두 허구일 뿐이다(〈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중)."

이대웅 기자

**WCIU**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Korea Be Inspired** 30주년 기념, 아주투어가 준비한 신년맞이 봄맞이 모국 힐링투어!

모국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특별한 내고향 향토음식, 구수하고 해박한 지식의 가이드 3명자를 모두 갖춘 구성입니다. 어릴적 그 모습! 그 옛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까지 치유하는 내 고향으로의 멋지고 맛있는 여행길로 초대합니다. 아주투어의 모국 힐링투어로 이만생활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문경제재/탄양팔경 추억여행 4일 \$399** (맛자랑! 맛자랑! 출발! 매주 화)

문경드라마 세트장/옛길 박물관  
**문경새재 추억속으로**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선병국 가옥, 정이품송 소나무, 도담삼봉, 원주 한지테마파크, 이천 도자기마을, 수원화성, 화성행궁

**진해벚꽃 축제여행 3일 \$199** (단 1회 출발! 4/2)

수령 80년이 넘는 벚나무와 38만여 그루의 벚나무  
**진해 벚꽃 관광**  
남원 광한루, 중원로타리, 여좌천, 해군기지사령부

관광외길 30년! 아주관광이 새로운 30년을 아주투어로 시작합니다!  
**US이주투어 213-388-4000**  
833 S. Western Ave #35-A, L.A., CA 90005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장,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로템

웹디자인: 쇼핑몰, e-commerce, cms 웹사이트, 온라인 배너, 웹사이트 유지 및 보수

그래픽디자인: 명함, 브로셔, 신문/잡지 광고, 배너

Rodem N. Hwang Designer  
213-587-3498  
kp.rodemh@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 1장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소명 감당할 터”

# 박정현도, 악뮤도, 기독교 뮤지션들의 '이유 있는' 활약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연 기독교와 음악적 재능 발전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종신대 교회음악과 이상훈 교수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를 거쳐 성장하면서 찬양팀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음악적 재능 발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교회가 아니면 체계적·집중적으로 음악 훈련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완성된 찬양을 부르기 위해 지휘자의 지도하에 매주 연습을 거듭하는 것이 실력으로 조금씩 쌓여간다는 설명이다.  
교회는 아이가 어렸을 때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관심을 키워갈 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자신감은 끊임없는 열정을 불어넣는데, 이 열정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일반음악대학의 통계를 살펴봐도 과반 수 이상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가톨릭에서도 체계적으로 성가대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계자는 “성당마다 청년 성가대가 있어 합창과 공연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시대적인 생활성가도 만들어 부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천주교 음악의 차이는 무엇이며, 기독교 음악의 어떤 특성이 청년들의 음악적 재능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이명신 교수는 “천주교의 성가는

재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음악에서 드러나 감동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풍부한 영성은 더 깊은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마커스의 심종호 찬양인도자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일어난다. 크리스천 음악가들만이 이 세상에 ‘힐링’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외칠 수 있다. 크리스천 음악인들의 마음 안에 이미 위로와 치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서양 음악의 발전을 많이 소개하며 선진 음악문화를 이끌어 왔었다”며 “교회

재능 발견부터 성장 단계까지... 교회에서 다양한 기회 제공

가톨릭 음악엔 없는, 자유로움과 자기고백적 성격

‘나는 가수다’, ‘보이스코리아’, ‘슈퍼스타K’, ‘K팝스타’ 등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대중이 열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 그 인기가 한풀 꺾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매년 새 시즌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도도 높은 편이다.  
노래에 대한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도전정신은 대중을 감동시키기 충분하다.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참가자들은, 경연을 통해 자신들의 끼를 발산한다.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 외에는 지역, 학력, 직업, 종교 등 어떠한 자격조건도 필요치 않다.  
그런데 두각을 나타내는 참가자들 중에는 크리스천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나가수’ 열풍을 일으켰던 김범수, 박정현부터 작년에 ‘나가수2’에서 가수상을 차지한 소향, ‘K팝스타1’ 우승자 박지민, 3위를 차지한 백아연, 그리고 최근에는 ‘K팝스타2’의 ‘악동뮤지션’, 맥케이 킴 등이 있다.  
부친이 목사인 박정현은 가스펠 음악에 심취해 GBC(Gospel Broad-

cast Company) 가스펠 싱어 컨테스트(Gospel Singer Contest) 대상 입상 후 1993년 가스펠 앨범 ‘Crying Inside Dying Inside’라는 앨범을 발표했다.  
CCM가수로도 유명한 소향도 올해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CCM 가수들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힌다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나가수’에 도전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K팝스타2 우승자 ‘악동뮤지션’의 이찬혁, 이수현 남매는 선교사 부모와 함께 몽골 초원에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오디션에 응모했다고 한다. 찬혁 군은 정규적 음악교육을 받지 못해 악보도 읽지 못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작곡을 한다고 한다.  
맥케이 킴도 방송에서 “어머니는 내가 교회에서 솔로로 노래하길 원하셨다. 나는 내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니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것이라며 격려해 주셨다. 어머니의 음악적 재능이 내게 전해진 것

있도록 도와준다. 유 교수는 “학창 시절 음악선생님이 ‘성악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음악가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많다. 성가대, 찬양팀 하면서 주위에서 ‘너 목소리 좋다’, ‘노래 잘 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인지하고 음악가의 꿈을 키워가는 것이다. 부모의 희망에 따라 처음에는 봉사의 목적으로 성가대에 서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음악이 좋아져 전공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종신대 교회음악대학원장 이명신 교수는 “교회의 찬양 환경이 아이의 무의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찬양소리를 듣고, 정신적·육체적인 자극을 받는다”며 “백지상태인 아이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과장들은 이후에 아이의 음악적 접근성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적 과장들은 아이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아이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이 자신감은 치열한 오디션의

집전의 예식 안에 들어 있는 성격이 강한 반면, 기독교는 자기고백적 성격의 음악들이 반을 넘는다. 교회의 여러 형태와 종류, 그리고 자기고백적인 음악들은 청년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천주교도 생활성가가 있지만 기독교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고, 분위기도 다르다. 다윗과 같이 뛰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는 청년들의 음악적 재능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횃서뮤직의 유지연 대표는 재능(talent)과 은사(gift)의 성격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유 대표는 “재능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두 주신 것이지만, 은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하늘에서 내려 준 것”이라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 재능을 갖고 뛰어 올라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주어진 재능에 은사까지 더하면 더욱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풍성한 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

음악은 탄탄한 기초를 갖추고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러한 음악을 접하면 후에 음악적 재능을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예술인들은 음악 뿐 아니라, 미술, 조각, 춤, 뮤지컬 등 예술계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예배의 진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훈련되는 음악 외에는 아직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진하는 크리스천 예술인들이 많고, 교회 문화도 개선되고 있어 점차 발전하고 있다.  
구여혜 한국미술선교회 전 대표는 “예술인들 중에 크리스천이 많은 것은, 개인의 명예나 성취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소명을 감당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술의 경우 은 종교개혁 이후 부상해처럼 취급되어 암흑기가 있기도 했지만, 최근 대형교회 위주로 미술인들이 모임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교인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했다. 신태진 기자

**이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30일** 품질의 자신! **30일** 환불 보장!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 앗! 집전화요금미 미쳤다!

비싼 집전화 거침없이 내려가는 요금

미국 무제한 통화 \$9.99 /월

- 미국 로컬, 장거리 무제한 통화
- 한국 유선 전화 매월 60분 무료

**대박 찬스** 지금 바꾸면 **2개월 무료!** 행사기간: 2013년 4월 15일까지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 수신 무제한
-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 기존 전화번호 유지 가능

**글로벌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2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화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3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LA 직영점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304호)** 213.559.7557 | 1.800.872.2902

지금 가입하고 친구추천 하면 **1개월 무료** 고객센터 문의 1.800.875.8318

\* 선2개월 무료: 14개월 정액 가입시 2개월 첫 2개월이 무료입니다. \*\* 미국문명인 플랜은 27개국 무제한은 매월 60분으로 제한된 14개월만 제공됩니다. 월 60분 무료 국외전화의 대안으로 2개월간 무료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단, 국제전화는 선2개월만 무료입니다. 단, 국제전화는 선2개월만 무료입니다. \*\* 미국문명인 플랜은 27개국 무제한은 매월 60분으로 제한된 14개월만 제공됩니다. 월 60분 무료 국외전화의 대안으로 2개월간 무료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단, 국제전화는 선2개월만 무료입니다. 단, 국제전화는 선2개월만 무료입니다.

www.phhyundai.com

스마트하게  
현대차를  
구입하려면,



# SUPER STORE 푸엔테힐스현대

## 고객의 1등 사랑, 1등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푸엔테힐스 현대가 도와 드립니다.  
친절한 상담과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013 ACCENT GS M/T



### \$69

+TAX (STK #092129)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5,985

PH HYUNDAI D/C \$1,344 MILITARY REBATE \$500  
COMP.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 \$90

+TAX (STK #701499)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60

PH HYUNDAI D/C \$2,300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EQUUS SIGNATURE



### \$473

+TAX (STK #065945) Demo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8,282 COMP. REBATE \$1,000  
LEASE CASH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스티브 장  
626.723.3336

찰리 정  
626.723.3038

브라이언 리  
858.337.3993